

AUTHOR 김영한

TITLE 한국교회의 칼빈주의 수용

- 예정론을 중심으로 -

IN 한국개혁신학

Vol. 27 (2010): 48-75

『한국개혁신학』 제 27호 (2010) : 48-75

한국교회의 칼빈주의 수용*

- 예정론을 중심으로 -

김 영 한(승실대 기독교학대학원)



한국교회는 칼빈의 예정론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박형룡, 박윤선 등은 예정론을 칼빈주의 핵심사상으로 이해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존재론에 기초한 작정적인 이해에 기초하였다. 그러한 수용은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며, 사변적 성격을 띤 것이다. 특히 이종윤은 교회사가 민경배의 예정론 이해를 따르면서 숙명론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대조적으로 프레드 클로스터, 헨리 반틸, 신복윤 등은 예정론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맥락에서 목회적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이들의 예정론은 칼빈의 본래적인 의도에 타당한 바른 이해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2판에서 구원론에서 섭리교리와 같이 다루었고 최종판에서는 섭리교리와 아주 분리시켰다. 이것은 예정교리가 목회와 복음 사역이라는 구체적인 구원의 경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론은 신학적 호기심이나 사

*본 논문은 승실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변적인 대상이 아니다. 예정론은 경건과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예정론은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작정에서 나오는 열매임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예정을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찬양을 돌리게 된다. 그에게 우리의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 우리는 순종의 신앙을 배우게 될 때 예정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용한 열매를 알게 된다.

주제어: 예정, 한국교회, 하나님의 주권, 구원론.

• 투고일 : 2009. 11. 07 • 수정 투고일 : 2010. 1. 16. • 게재 확정일 : 2010. 3. 16.

머리말

필자는 이 논문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수용한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논구해보고자 한다. 박형룡과 박윤선, 그리고 신약학자요 목회자인 이종윤에 의하여 수용된 예정론을 살펴보고, 그리고 신복윤에 의하여 번역된 클로스터(F. H. Klooster)의 예정론과 이근삼에 의해 번역된 반틸의 예정론에 의하여 수용된 칼빈주의 예정론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복윤 자신에 의하여 이해된 예정론을 논구하고자 한다. 전자들은 예정론을 신론에서 이해하고자 했으나, 후자들은 하나님의 구원론의 테두리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이 예정론을 칼빈의 본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 교리 안에서 구원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것만이 예정론을 숙명론

으로만 이해하는 사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며, 예정교리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I. 칼빈신학의 원리를 예정론으로 파악

박형룡, 박윤선, 이종윤 등은 예정론이 칼빈신학의 원리라고 보고 있다.

1. 박형룡의 수용

박형룡은 그의 『교의신학 신론』에서 예정론을 칼빈주의 원리로서 수용하고 있다. 그는 예정론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 배치와는 다르게 신론에서 다루며, 하나님의 작정론 다음에 그리고 창조론 다음에 배치하고 있다.¹ 박형룡은 오늘날 예정론을 경멸과 조소의 대상으로 삼는 현대신학의 경향을 언급하면서, 칼빈주의 신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정론이라고 말한다. 박형룡은 브리트너(Lorraine Boettner)의 예정론 서론을 인용한다: “이 교리는 대다수의 복음주의 교회의 신경에 들어 있다.” 복음주의 교회란 침례교회, 회중교회, 심지어 헛트필트 감리교, 영국 국교회, 스코틀랜드의 여러 교파, 영국의 청교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프랑스의 개혁교파인 위그노를 말하며 이들 교회가 모두 예정교리를 신봉하였다. “예정론은 전 교회의 신앙으로 인정된 것이다.”²

그리하여 박형룡은 예정론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론에서 전개해 나간다. “인류의 운명에 관하여 예정의 작정을 지으신 이는 물론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하나님이시다.”³ 박형룡은

예정론을 삼위일체적으로 전개한다: “예정은 그 모든 부분에서 도모와 의지가 동일하신 하나님 삼위의 일치한 행위인 것은 의심없다.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에게 삼위의 구별없이 귀속시키는 성구들이 있다.” 그는 로마서 9;13, 18,21, 그리고 11;7을 듣다. 구속론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이 예정론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한다.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구속은 성자에게, 성화는 성령에게 특별히 구속시킴같이, 예정의 주권적 행위는 성부에게 특별히 귀속시키는 것,” “택한 백성을 성부가 성자에게 주셨으며(요17;6, 9)”⁴라고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정의 대상은 선하고 악한 모든 사람 그리고 천사, 예정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이시다.

박형룡은 바르트의 예정론, “특히 그리스도가 예정의 주체”⁵라는 견해에 대하여 칼빈의 입장에 서서 비판적 고찰을 하고 있다. 박형룡은 바르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리스도는 “선택의 주체, ‘선택하시는 하나님’” 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따로 있는 신비로 될 것이요, 사람은 절대적 작정의 그늘 아래 남아있게 될 것이라 한다.”⁶ 이에 대하여 박형룡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그리스도를 선택의 주체로 보는 바르트의 교설은 전적으로 요한복음의 몇 구절에 제한되어 있다.” 이 구절들은 사도직으로 그리스도를 부르심과 선택을 말하고 있다고 본다. 박형룡은 그리스도의 선택이 구원의 전 과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신자의 선택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사이의 연결이 있다. 그는 칼빈의 견해를 듣다. 칼빈에 의하면 제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제자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고 그리스도의 선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칼빈도 이 연락을 보았으니

³ 상계서, 279.

⁴ 상계서, 279.

⁵ 상계서, 281.

⁶ 상계서, 282.

¹ 박형룡, 『교의신학 신론』, 박형룡 박사 저작 전집(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275-321.

² 상계서, 276.

즉 제자들의 선택에도 그들 편에 아무 공로가 없다는 점에서다.” “그들의 선택이 그 자신들의 생활로부터 오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오게함에서다.”⁷ “칼빈은 말하되 이것이 놀랠만하지 않음은 성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동하시고, 그리스도는 성부와 함께 행동하시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요 15:14의 석의(釋義)에서 이 사도들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으로부터 분리되기 불능하다고 말하였다.”⁸ 박형룡은 여기서 선택의 예정은 구원론의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나 섭리론의 차원에서는 성부의 선택의 작정이니 만큼, 성부가 예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형룡이 바르트의 예정론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으나 그가 바르트 예정론의 핵심인 그리스도일원론적 예정론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크게 아쉬운 면이 있다.⁹

2. 박윤선의 수용

박윤선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을 인용하면서도 칼빈의 의도에 따라서 예정론을 성령론에서 다루지 않고 신론에서 다루고 있다: 예정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박윤선은 하나님의 예정이 선택된 자의 선행(善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인용하고 있다. “그(필자주: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알려진 자, 곧 예택된 까닭에 알려진 자를 가리킨다. 사람들의 선행(善行)을 근거로 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바울의 사상이 아니다.”¹⁰

⁷ 상계서, 282.

⁸ 상계서, 282.

⁹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74-77.

박윤선은 유기(遺棄)적 작정을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이 이 사상이 어거스틴과 칼빈에게서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유기로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에 의하여 가르친 바요, 칼빈이 성경적 교리로 여긴 것이다. 그는 이를 ‘무서운 결정’(deretum horribile)이라고 불렀다.”¹¹ 이것은 다만 하나님 자신만이 아시는 지혜이다. 이 유기 교리를 아는 신자들은 두려움과 감사와 겸손을 가진다. 그 이유는 똑같은 죄인들 중에서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윤선은 무조건적 선택론을 옹호하면서 칼빈의 주장을 인용한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은 진인한 전자(專恣)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행위는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¹²

박윤선은 예정 교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으로 수용하면서 인간들의 자유와 행위에 근거를 두는 아르미안주의(Arminianism)의 오해를 비판한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행위를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조건적 선택을 의미하지 않고, 조건적 선택을 의미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못받든지 그의 자유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은 그의 자유에 의하여 좌우됨이니 그의 죽는 날에야 최종 결정을 보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¹³ 박윤선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인용하면서 “신자의 신앙과 선행은 선택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으나 선택함을 받는 근거는 아니라”¹⁴고 말하고 있다.

¹⁰ Calvin, *Institutio*, III. 23. 7;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3), 128.

¹¹ Calvin, *Institutio*, III. 20. 17;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3, 128.

¹² Calvin, *Institutio*, III. 23. 8;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3, 129.

¹³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영음사, 2003), 130.

¹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2절, 16장 2-3절,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3), 130.

박윤선은 예정론을 반대하는 견해를 소개하고 반박하는 데 있어서 브트너(Lorraine Boettner)의 개혁주의 예정론에서 자료를 빌려오고 있다; 첫째, 예정교리는 운명론이 아니다. 운명론은 인격적 신이나 인간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는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성결과 공의와 지혜에 의하여 선택할 자를 선택하였다고 본다.

둘째, 예정교리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론이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사람의 행동을 예정하셨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박윤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와 무소불능하신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마치 금붕어가 어항 속에서 자유하고 있지만 그 어항을 사람이 간수하며 사람의 자유로 옮겨 놓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¹⁵ 셋째, 예정 교리는 노력의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반대론이다. 반대론자들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다면 사람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힘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박윤선은 다음 두가지로 답변한다: 1.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일 자체를 예정하였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 그것만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편까지도 예정하신 것이다.”¹⁶ 2. 예정교리를 믿는 자는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고 오래 참고 노력한다. “예정 교리야 말로 사람의 노력을 유력하게 만들어 준다.”¹⁷

그리고 박윤선은 예정을 변증법적으로 이해하면서 전통적인 예정의 교리를 부인하는 바르트의 예정론을 비판하고 있다. 바르트는 “개인들에게 구원이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의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 박윤선은 『로마서』 2판에 나타난 바르트의 견해를 인용한다: “야곱이 에서이기도

하고 에서는 또한 야곱이기도 하다. 개혁자들이 선택의 교리와 유기의 교리를 이 개인, 저 개인에게 일정하게 붙여 말했는데 그것은 신화적 표현이다.”¹⁸

3. 이종윤의 수용

1) 예정론 중심의 칼빈 해석

신약학자로서 목회자이지만 이종윤이 그의 시각에서 칼빈을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의 논의에 들어올 수 있다. 그는 칼빈의 사상을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으로 이해하기는 하나 예정론적 선택사상을 칼빈 사상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종윤은 바르트적 일원 예정론doctrine of monistic predestination)과 대비하여 칼빈의 이중 예정론(doctrine of double predestination)을 특히 소개하고 있다: “칼빈은 1539년 『기독교 강요』 2판을 출판하면서, 칼빈 특유의 독특한 교리를 삽입해 넣는다. 그것이 바로 ‘이중 예정’(predestinatio germina)에 관한 교리이다, 뿐만 아니라 칼빈의 이중 예정론은 그의 생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한 제네바 합의서’의 개혁교회 교리로서 정식 선포되었으며, 훗날 웨스터민스터에서 개최된 칼빈파 교회회의에서 개혁신학의 가장 독특한 교리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이중 예정’에 관한 교리는 누구든지 인정하는 칼빈 신학의 독특한 특징이다. 그의 이중 예정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영원전부터 혹자는 구원 그리고 혹자는 파멸로 예정되었다는 것이다.”¹⁹

이종윤은 칼빈 신학사상의 특성을 “이중 예정론적 선택교리”로서 특

15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3), 132.

16 Ibid., 132.

17 Ibid., 133.

18 Karl Barth, *The Epistle to the Romans*, (1957), 347,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3), 133.

19 이종윤, “칼빈과 한국교회,” 『요한 칼빈탄생 50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9년 6월 22일), 4.

징짓고 있다: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칼빈은 ‘두려운 결정’ (decretum horrible) (Inst.III.23.7)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칼빈의 이중예정은 신학자들에 따라서 ‘예지 예정론(infralapsarian)으로 아니면, 절대예정론(supralapsarian)으로 해석할 것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칼빈의 이중 예정론 선택사상이 그의 가장 독특한 신학적 교리임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²⁰ “칼빈의 이러한 이중 예정론은 이후 개혁교회 전통의 신앙고백서에 삽입되어 오늘날까지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교리로 굳게 자리잡고 있다”²¹고 펴력하고 있다.

2) 예정론 중심의 한국 장로교 신앙 해석

이종윤은 예정론 중심으로 한국 장로교신앙을 해석한 교회사가 민경배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민경배는 한국교회가 청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진출을 감지하면서 자의적 민족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리사관적 역사이해라고 규정한다.²² : 그 구체적인 증거로는 조선국명을 영어로 “Chosen”이라고 썼다거나, 한국민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The lost Tribes of Israel)로 보았다거나, 한국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자연스럽게 사용, 그리고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했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민경배는 “선택사상을 강조하는 장로교회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 지방에서 급격히 성장”하였고 이 “선민사상이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저항할 수 있는 신앙적 토대가 된 것”이라고 본다.

²⁰ Ibid. 5, 이종윤이 infralapsarian을 “예지예정론”으로, supralapsarian을 “절대예정론”으로 번역한 것은 바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두 개념이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상 이루어지는 예정이기 때문에 infralapsarian은 작정상 타락후예정설, supralapsarian은 작정상 탈락전 예정설이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²¹ Ibid. 5.

²² 민경배, “한국교회의 역사의식,” 연세대학교 신과대학편, 『문상회 교수 유동식 교수 회갑논문집』, 신학논단15집, (1982), 154.

그리고 “일제에 대한 조선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와 수난, 그리고 그들에 대한 끝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해방, 구속적 징계” 해석 하였다.²³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한국민족의 해방의 전거(典據)로서 해석되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구약성경의 대부분이 멱칠을 당한채 교인들 손에 읽혀져야 했고, 찬송가도 상당 부분 금창되었다²⁴

이종윤은 민경배의 견해를 따라서 한국교회의 선민사상이 서북지역 교회, 특히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칼빈의 예정교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종윤은 근거를 듣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칼빈의 예정론적 선택교리를 굳게 믿고, 황량한 신대륙에서 가난과 고난을 참고 견디었던 것 처럼, 일제의 억압 속에 있던 한국장로교회는 ‘칼빈의 예정론적 선택사상’을 갖고 일제의 억압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갔기 때문이다.”²⁵ “1899-1900년 사이에 장로교인의 경우, 10개 도시의 통계만 보아도, 교적에 등록한 입교인은 3,946명이고 출석교인은 14,509명으로 나타나있고... 이때 장로교인의 증기는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1897년 경 장로의 30여개 전도지역에 이미 18개 지방이 황해도, 평안도 지방이었다.”²⁶ 이종윤은 칼빈 전통의 장로교의 핵심교리란 다름아닌 “칼빈의 예정론적 선택사상”이었다고 펴력하고 있다.²⁷

²³ Ibid., 155f.

²⁴ Ibid., 157.

²⁵ 이종윤, op. cit., 11.

²⁶ 김송달, 『바로 보는 한국근현대 100년사;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서울: 그림, 1998), 130

²⁷ 이종윤, op. cit., 11.

II. 칼빈 신학의 원리는 하나님 주권 사상: 예정론은 하나님 주권사상의 부분

이에 반하여 클로스터, 반털, 신복윤은 칼빈신학의 원리는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1. 클로스터(Fred H. Klooster)의 칼빈 수용: 구원론적 예정 교리

클로스터의 저서『칼빈의 예정론』(*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1977)은 신복윤에 의하여 1986년에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되었다. 클로스터는 예정교리가 칼빈신학의 중심교리가 아니라고 천명한다: “예정교리가 칼빈신학의 중심교리이며, 논리적 연역에 의해 그의 전체 신학체계를 조직화한 기본원리라는 주장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 칼빈은 예정교리를 논함에 있어서 사색적이고 냉철한 추론에만 의존하지 않았다.”²⁸ “예정 교리는 분명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시작한 중심 주제는 아니었다. 칼빈은 결코 예정교리를 그의 신학적 주제로 삼지 않았다.”²⁹ 그러나 클로스터는 “예정교리가 칼빈의 중심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체계화한 그의 신학 전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³⁰고 본다.

클로스터는『기독교 강요』의 조직적인 배열로 인해 때때로 칼빈에 대한 부당한 해석이 나온다고 지적한다: “후에 개신교 신학자들이 창조론을 다루기 전에 예정 교리를 하나님의 작정 교리와 함께 논하고, 칼빈의

마지막 자료 배열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³¹ 칼빈의 예정교리는 그의『기독교 강요』제 3권의 마지막 부분의 구원론을 다루는 부분에서 나온다. 기도에 관한 긴 장이 예정교리 안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에 관한 내용이 그 뒤에 배열되고 있다. 1539년- 1554년 사이에 출판된『기독교 강요』에서는 예정론은 하나님의 섭리론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1559년 최종판에서 예정론은 섭리론과 분리하였다. 클로스터는 다음같이 피력한다: “이 예정교리를 칼빈신학의 논리적 핵심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문맥을 살펴야 할 것이다.”³²

클로스터는 조직적인 재배열을 통한 이러한 예정론의 위치 변화가 “칼빈 사상의 근본적인 것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주: 칼빈)가 섭리를 논했을 때, 그는 예정 교리, 즉 선택과 유기의 문제를 언급할 필요를 느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예정교리를 논했을 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것이며, 그의 계획은 그의 섭리의 방향과 만물의 통치를 통해 시행된다.”³³

클로스터는 예정 교리를 구원론의 테두리 안에서 성찰한다: 구원론의 관점에서 예정교리를 다루게 될 때 우리 신자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 “칼빈 자신은 이 교리를 실재로 매우 유익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 교리 속에 신자들을 위한 ‘감미로운 열매들’이 내재되어 있으며, 과연 이 성경적 예정교리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신자들은 그 자신의 구원에 대해 침된 확신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⁴

클로스터는 예정 교리의 실재적 의미, 즉 교리의 유용성과 감미로운

²⁸ Fred H. Klooster,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7), 신복윤 역, 『칼빈의 예정론』, (서울: 성광출판사, 1987), 16

²⁹ Ibid. 17.

³⁰ Ibid., 18.

³¹ Ibid., 17.

³² Ibid., 18.

³³ Ibid., 41.

³⁴ Ibid., 13.

열매에 관하여 논한다. 세가지 열매란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무상의 자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진실한 겸손”³⁵이다. 클로스터는 예정 교리의 성경적 근거를 말한다.³⁶ 예정 교리는 호기심이나 신학적 사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예정 교리는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2. 헨리 반틸의 예정론 수용

이근삼에 의하여 1977년 번역된 『칼빈주의 문화관』(*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1972)에서 헨리 반틸(Henry Van Til)은 칼빈의 예정론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칼빈은 어떤 사상적 체계를 위하여 예정론을 쓰지 않았다. 그는 예정론이란 단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다.”³⁷ 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예정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다. 여기서는 알아서 필요 없는 것, 유의하지 않는 것은 다 제거되어 있다. 그리하여 알아서 이롭지 못한 것은 한가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 예정 교리에 대하여 성경에 선포되어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자들에게 숨겨두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신자들을 속이고, 여러모로 보아 발표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성령이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 신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성령이 한번 입을 다물 때에는 그는 모든 질문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배움에

³⁵ J. Calvin, *Institutio*, III. 21. 1.

³⁶ Fred H. Klooster, op. cit., 25.

³⁷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 역, 『칼빈주의 문화관』(서울: 성암사, 1984), 126.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뿐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만둘 때 즉시 배우려 하는 우리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 성실한 태도를 지키는 좋은 길이다”³⁸

칼빈은 하나님의 비밀을 남김없이 탐색하기를 원하는 지나치게 호기심이 많은 자들을 경고함으로써 우리를 미궁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칼빈은 미궁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한도를 넘지 않도록 충고하고 있다. 반틸은 다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인용하고 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무지를 수치로 여겨서는 않되는 까닭은 유식의 무지가 있기 때문이다.”³⁹ 그러나 나약한 자의 마음을 위하여 예정론을 숨겨 놓을 수 없는 일이다.⁴⁰

반틸은 하나님의 주권교리를 인정한다: “칼빈은 또한 성경에 복종하므로 만물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으로 말미암아 발생된다고 가르친다. 비록 우리의 유한한 마음이 때로 선택과 유기의 사실 때문에 난처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피조물이 공의의 최고 심판장인 하나님의 뜻을 무법하게 파고 들어가려 함에 있는 것이다, 칼빈의 하나님은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헨리 반틸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 아래서 이러한 칼빈의 의도를 해석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으로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불신앙의 태도이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성과 무한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⁴¹

헨리 반틸은 예정교리에 대하여 다음 결론을 내린다: “칼빈은 이같이 깊고도 엄위하신 신관을 가졌고, 스스로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

³⁸ *Institutio*, III.21.3;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 역, 『칼빈주의 문화관』, (서울: 성암사, 1984), 126-7.

³⁹ *Institutio*, III. 21. 2.

⁴⁰ *Institutio*, III. 21. 4.

⁴¹ *Institutio*, III. 23. 2; Henry Van Til, op. cit., 127-8.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그는 실로 하나님에 취한 사람이라고 불리울 만도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예정교리는 고립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설교를 통하여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증거됨을 확신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예정하셨고 이러한 자식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열심있게 하신다는 축복된 보증으로 기뻐하고 기뻐하였다.”⁴²

3. 신복윤의 칼빈 수용: 구속론의 주춧돌

1) 예정 교리: 구속론의 기초석

신복윤은 예정 교리가 칼빈신학의 중심교리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클로스터를 따라서 예정 교리가 칼빈신학의 원리는 아니라고 본다: “칼빈은 분명히 자신의 전 신학체계를 이 개념으로 조직하려고 하지 않았다.”⁴³ 칼빈은 『기독교 강요』초판에는 예정을 다르지도 않았다. 예정론은 『기독교 강요』의 1539년 개정판 제3권 말미에야 처음 나온다. 그는 섭리와 예정을 나란히 배치했다. 그러나 1559년 최종판에는 이 둘을 분리시킨다. 섭리는 신론에 배치하고 예정은 성령론에 배치한다. 섭리 교리와 예정 교리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섭리 교리가 창조주 하나님 교리를 완성하는 것이라면, 예정 교리는 구속주 하나님의 교리의 기초석 (capstone)이 되는 것이다.

신복윤은 칼빈에 있어서 예정론은 신론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구속론의 한 부분이라고 해석한다: “칼빈은 예정론으로 시작하지 않고, 속죄, 중생, 칭의, 그리고 다른 교리들로부터 시작한다. 예정은 구원사에서 쟁점이 된다. 칼빈은 사실상 예정을 복음전파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제로 소개했다.

⁴² Henry Van Til, op. cit., 128.

⁴³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5), 223.

복음이 선포될 때, 어째서 어떤 사람은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하지 않는가 하고 그는 묻는다.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심오함이 알려진다고 칼빈은 말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회적 관심사였다.”⁴⁴

2)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예정: 호기심 경계

신복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 3권 21장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직 창조되기 전부터 구별하여 일부는 구원받도록 예정하고, 그 나머지는 멸망받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적 가치에 관계 없이 하나는 구원으로,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이를 아무도 설명하거나 추궁할 수 없다. 오히려 칼빈은 호기심을 갖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다.”⁴⁵

3) 성경의 계시로서의 예정

신복윤은 칼빈이 그의 예정론을 사변에서 생각한 것이라, 성경이 계시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해석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신비롭고 깊기 때문에 사람은 이것을 알 수 없으며, 함부로 알고자 하는 것은 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만 성경에 나타내셨으며,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것도 알 수 없다.”⁴⁶

신복윤은 칼빈이 예정 교리를 선택자들을 위한 제한적 사용의 구실로

⁴⁴ Ibid., 224.

⁴⁵ Ibid., 225.

⁴⁶ Ibid., 225.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였다고 해석한다. “칼빈은 이 예정교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구실로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자신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버리셨는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유효적 소명을 위하여 그것을 외적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다.”⁴⁷ 신복윤은 칼빈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우리가 말씀의 한계를 넘는 순간 바쁜 길에서 벗어나 암흑 속으로 들어간다.”⁴⁸ 그는 예정론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칼빈의 말을 인용한다; “성경에서 예정에 대하여 밝힌 것을 신자들에게서 빼앗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며, 또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은 하나님도 빼뜨리지 않는 동시에, 유익한 지식이 아니면,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⁴⁹

4) 예정: 하나님의 세가지 작정

신복윤은 칼빈의 예정론을 하나님의 세 가지 작정으로 해석한다.

(1) 예정: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작정

신복윤은 피력한다: “예정은 어떤 우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변적인 의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작정이다.”⁵⁰ 칼빈은 예정의 근거를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처럼 인간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있다. 칼빈은

⁴⁷ Ibid., 231.

⁴⁸ *Institutio*. III.21.2 ;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5, 226.

⁴⁹ *Institutio*. III. 21.3;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5), 226.

⁵⁰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5), 226.

예정이란 인간 공로에 대한 예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서 온다.⁵¹

바울은 창세 전(엡 1:4) 선택을 말함으로써 인간의 공로에 대한 고려를 전적으로 차단한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덕과 선한 행실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칼빈은 수용한다.⁵² 신복윤은 칼빈이 예정근거를 우리의 선한 행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에 두었다고 해석한다. “신자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택의 결정만 기초로 한 것이며, 이 은혜는 행위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부르심에 의한다.”⁵³

(2) 예정: 하나님의 특수한 작정

예정이란 개인에게 해당한다. 은혜 언약은 언약 백성일지라도 각 개인적으로 적용된다(롬 9:1-6). 신복윤은 칼빈이 제한적 속죄론을 주장하였다고 해석한다: “속죄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선택된 자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⁴ 모든 인류가 차별없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에게 특별히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신복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구원의 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도 실제로 똑같이 유익한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가르침을 그릇되게 저속화 하는 것이다.”⁵⁵

(3) 예정: 이중적 작정

⁵¹ Ibid., 227.

⁵² John Calvin, *Institutio*. III. 22. 2.

⁵³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5), 228.

⁵⁴ Ibid., 228.

⁵⁵ *Institutio*. III. 22.10 ;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5), 228.

하나님의 예정은 이중적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하심을 따라 어떤 개인들은 영생하도록 결정하시고, 또 자신의 공의를 따라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파멸하도록 결정하신다.”⁵⁶ 이러한 하나님의 이중 예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은 택하시고, 저 사람은 버리셨는가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그 질문자는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이에 대하여 칼빈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⁵⁸ 이것은 무서운 결정이다. 신복윤은 칼빈의 예정을 타락후 선택설(*Infralapsarianism*)⁵⁹의 입장에서 해석한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의 타락과 그로 인해서 후손이 멸망할 것을 예견하셨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도록 마련하셨다.”⁶⁰ 유기의 예정에 대하여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존하되, 그 원인과 기회는 그들 자신 안에 있다”는 칼빈의 입장을 수용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한대로 넘어지지만, 자기의 허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⁶¹

신복윤은 칼빈의 예정 교리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말한다.

첫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둘째, 로마 천주교의 자력구원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

⁵⁶ 신복윤,『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5), 229.

⁵⁷ Ibid., 229.

⁵⁸ *Institutio*. III. 23. 2.

⁵⁹ 이승구는 그의 논문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한 고찰”에서 “타락전 선택설과 타락후 선택설 사이의 논쟁”을 칼빈 자신의 예정론 문장 및 도르트 회의 결정문과 관련시키면서 선택과 유기가 역사적 맥락이 아니라 창세세전, 즉 영원전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주권적 작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때문에 계리쉬가 말하는 역사적 차원에서의 타락 후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정의 순서상, 창조, 타락, 선택 및 유기라는 순서가 맞다고 본다. 그리하여 용어상 작정상 타락후 선택설(*Infralapsarianism*)이 비튼 표현이고 칼빈의 의도에 일치한다고 본다. 이승구,『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서울: SFC, 2005), 106.

⁶⁰ *Institutio*. III. 23. 7.

조한다.

셋째, 구원의 진리를 아는데 있어서 유일한 교사인 성경으로 되돌아 가야한다.

신복윤은 이러한 칼빈의 예정교리를 구원론의 관점에서 조명하면서 교회사를 통해서 유능한 복음전도자와 선교사들이 모두 예정교리의 충실히 옹호자들이었다는 점을 든다. 특히 대표적 예가 18세기 대각성운동시기에 칼빈주의자였던 조지 웨일즈(George Whitefield)이다. 그는 아르미니안주의자 웨슬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 예정교리는 믿는 자에게 “유혹과 시련의 때의 요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영광을 친양하는 신앙고백”⁶²이다.

III. 하나님의 주권교리에서 나오는 예정교리

필자는 이제 칼빈의 예정 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 주권 교리가 갖는 하나님의 주권, 은혜와 공의에서 예정교리가 설명된다.⁶³

첫째, 하나님의 선택 작정은 그의 주권적 작정이다. 여기서 칼빈은 이 중 예정을 말한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른다.”⁶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어떤 이들

⁶¹ 신복윤,『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5), 231.

⁶² Ibid., 231.

⁶³ Fred H. Klooster,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신복윤 역,『칼빈의 예정론』, 34.

⁶⁴ J. Calvin, *Institutio*, III. 21. 5.

은 멀망에 벼려두기로 작정하신 것을 보여준다.”⁶⁵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인간의 선택보다 선행하며, 아담의 타락보다도 선행한다.

둘째,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주권교리에서 나온다. 클로스터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그의 대답은 오직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창조주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인간 속에는 선택 또는 유기를 결정지울 만한 어떠한 요소도 내포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를 보이신 선택자들 역시 유기된 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죄이다. 비록 유기된 자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간과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는 그들의 죄에 기인된 것이 아니었다.”⁶⁶ 예정, 인간의 선택과 유기란 자신들의 행위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주권적 작정에 기인하고 있다.

선택의 첫 번째 이유란 “원인으로서의 선행이나, 또는 그에 대한 예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즉 그의 주권적 의지 혹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다.”⁶⁷ 행위가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상(無償)의 자비가 바로 그 근거가 된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⁶⁸

작정하신 근거는 무엇인가. 칼빈은 바울의 중언(엡1:5)을 따라 “그 기쁘신 뜻”이라고 했다. 덤후 1:4-9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폐역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그 어떤 원인도 갖고 있지 않다… 그의 단순한 뜻(sa simple volonté)은 우리에게 모든 이유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

⁶⁵ J. Calvin, *Institutio*, III. 21. 7.

⁶⁶ Fred H. Klooster,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신복윤 역, 『칼빈의 예정론』, 44.

⁶⁷ Ibid., 47.

⁶⁸ J. Calvin, *Institutio*, III. 22. 8.

공해준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결코 그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다.”⁶⁹

2. 목회신학적 질문

칼빈은 예정론에서 시작하지 않고 속죄, 중생, 칭의에서 시작한다. 예정은 구원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된다. 예정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론에서 이해하지 않고 구원론의 태두리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 들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신학적 이유로 제시한다. 칼빈에게서 예정은 신학적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회적 관심사”였다.⁷⁰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를 아무도 설명하거나 추궁할 수 없다. 칼빈은 호기심을 경계하고 있다. “주께서 깊이 감추어 두시기로 정하신 사람이 마음대로 탐구하거나, 가장 숭고한 지혜를 사람이 영원자체로부터 풀어내려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지혜를 이해하기보다는 경외하기를 원하시며, 경외함으로써 찬양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의 비밀의 뜻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었다. 우리에게 관계되며, 유익하리라고 예견하신 범위 내에서 계시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⁷¹

칼빈은 앱1:4 그리고 골1:12에 근거하여 예정교리를 제안한다. 예정교리는 스콜라적 사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회적 관심에서 나왔다. “우리는 주께서 비밀로 그대로 두신 것을 탐색해서는 안되는 동시에, 공개하신 것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편으로는

⁶⁹ J.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s(1;8-9) of St. Paul to Timothy and Titus*, 703a (OC, 54:48) 그리고 Fred H. Klooster, op. cit., 52.

⁷⁰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출판부, 2005), 224.

⁷¹ J. Calvin, *Institutio*, III.21. 1.

과도한 호기심을 가졌다는 비난을 피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은혜를 모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⁷²(신복윤, 231).

칼빈 사상의 초점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이었다. “칼빈은 26살에 기독교강요를 접했으며 개혁신앙의 선구자가 됐다”고 밝힌 후 “그는 자신의 목회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 개혁신앙으로 무장된 지도자와 선교사를 배출해 전 유럽에 종교개혁의 불길을 퍼뜨렸다.”

칼빈은 스스로를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인식한 적이 없었지만 그의 교육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세계를 변화시켰다. 정성구가 펴낸 바 같이 “우리의 목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의 약점은 머리로는 믿으면서 가슴이 싸늘해서 신앙이 실천이 되지 않고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 않는 것”⁷³이라고 지적했다.

“칼빈은 병약했을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그의 신학과 신앙, 삶은 오늘날의 교회에 큰 도전을 준다”고 강조 했다. “종교개혁이 끝나고 2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기독교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가기 시작했다. 가톨릭에 대항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세워진 교회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았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1백년도 채 되지 않는 역사 가운데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것을 이길 힘은 칼빈이 믿었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 뿐이다.”⁷⁴

⁷² J. Calvin, *Institutio*, III. 21. 4.

⁷³ “칼빈신학의 핵심은 ‘칼빈’이 아니다” 정성구 박사, 칼빈의 설교와 목회 조명 [2009-06-08 07:40], 시카고=김준형 기자 jgryoo@chtoday.co.kr

⁷⁴ “칼빈신학의 핵심은 ‘칼빈’이 아니다” 정성구 박사, 칼빈의 설교와 목회 조명 [2009-06-08 07:40], 시카고=김준형 기자 jgryoo@chtoday.co.kr

구원론적 예정 교리는 다음 문장이 결정적인 이유로서 제시된다: “실제적인 사실로서 생명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파되고 있지 않으며, 또 전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복음이 계속 또는 동일한 정도로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다양성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깊이가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같은 다양성이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주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에 접근하는 것 조차 금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는 중대하고도 난해한 문제가 있다. 이는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선택과 예정을 확신하지 않는 한 달리 해명할 길이 없는 문제이다.”⁷⁵

맺음말

한국교회에 있어서 칼빈주의 예정론의 수용은 박형룡, 박윤선 그리고 이종윤 등에 의하여 예정론이 칼빈주의의 핵심사상으로 이해되었다. 세 분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절대주권 사상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예정론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숙명론적인 차원으로 수용되었다. 이러한 칼빈주의 수용은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변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종윤의 경우에는 민경배의 예정 이해를 따라가면서 숙명론적인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은 예정론을 무상은혜의 선택과 공의로운 유기의 이중적으로 파악하면서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적 예정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프레드 클로스터, 헨리 반틸, 신복윤 등은 예정론을 하나님의 주권사상의 테두리와 구원론의 맥락에서 목회적으로 수용하고 있

⁷⁵ J. Calvin, *Institutio*, III. 21. 1.

다. 이들은 칼빈의 사상, 그리고 칼빈주의의 특징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정론이란 신학적 호기심이나 사변의 대상이 아니라 경건과 외경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한다. 예정교리는 그럴 때 인간이 신학적 사변으로서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정 교리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작정에서 나온 결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의 주권적인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순종의 믿음 안에서 만 예정교리가 가져다 주는 유용한 감미로운 열매를 알게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주권적인 무상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겸허한 감사 속에서 우리나오는 구원의 확신이다.

[참고문헌]

- Barth, Karl. *The Epistle to the Romans*. Edinburgh: T.&T. Clark, 1957.
- Calvin, John. *Institutio,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2 vol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 _____. *Sermons on the Epistles(1;8-9) of St. Paul to Timothy and Titus*, 703a(OC, 54:48)
- Klooster, Fred H.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7, 신복윤 역, 『칼빈의 예정론』. 서울: 성광출판사, 1987.
- Van Til, Henry R.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 역. 『칼빈주의 문화관』. 서울: 성암사, 1984.
- 김송달. 『바로 보는 한국근현대 100년사;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울: 그름, 1998).
-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민경배. “한국교회의 역사의식.” 『문상희 교수 유동식 교수 회갑논문집』. 연세대학교 신과대학편, 『신학논단』 15집 (1982).
- 박형룡. 『교의신학 신론』. 박형룡 박사 저작 전집(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3.
- 이승구.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한 고찰. 타락전 선택설과 타락후 선택설 사이의 논쟁 및 칼빈의 예정론.”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서울: SFC, 2005: 95-112.
- 이종윤. “칼빈과 한국교회.” 요한 칼빈탄생 50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9년 6월 22일.
-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5.

〈Abstract〉

Reception of the Calvinism by Korean Church
- Centered on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

Yung Han Kim
(Soongsil University)

In the Acceptance of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 Calvinism in Korean church Park, Hyong Ryong, Park, Yun Sun and Lee, Jong Yun understood it as a core thought of Calvinism. Their understanding on the predestination wa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God's decree based on the doctrine of God's being. Such a reception is due to the misunderstanding of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has a speculative tendency. Especially the case of Lee Jong Yun is coming to the tendency of fatalism, by following the Min, Kyung Bae's church-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predestination.

By contrast, Fred Klooster, Herny Van Til and Shin Bok Yun understands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 the perspective of ministry in the context of God's absolute sovereignty. Their understanding of the doctrine of the predestination is right understanding which is relevant to Calvin's original intention. Calvin put firstly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with the doctrine of decree in the second edition of the *Institutio*, and separated it from the doctrine of decree in the last edition of *Institutio*. He intended to treat it only in the context of the doctrine of salvation.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s neither a theological curiosity nor a speculative object. It should be approached with piety and reverence. The doctrine of the predestination teaches

us that our faith and salvation do not come from ourselves but a fruit coming from the God's eternal salvific decree. When we come to know it, we come to truly give glory to God and to praise his sovereign grace and to be humble and modest before Him. We can come to know the sweet and useful fruits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brings when we come to the faith of obedience.

• **Key-Words:** predestination, Korean church, the sovereignty of God, the doctrine of salvation.